

잊혀져 가는 고구려의 숨결

《고구려 문화유적 산책》 펴낸 김삼순씨

《고구려 문화유적 산책》(대륙연구소 출판부)은 중국 집안(集安)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적을 소개한 책이다.

“중국인에게도, 한국인에게도 잊혀진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집안시는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국내성의 옛터로 성곽과 고분들이 흩어져 있다.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지난 세월 동안 심하게 훼손된 채.

김삼(45세, 연변일보 기자)씨가 취재를 다녔던 94년에도 이미 국내성의 서쪽 성벽은 민가의 담으로 쓰이고 있었다. 크고 반듯한 벽돌들은 다 집어가버려 10년 전만 해도 7~8m에 이르렀다는 성벽이 이젠 밑부분만 남아 있다. 고분벽화는 훼손 정도가 더 심각해서 연구자료에 나타난 벽화가 10년 사이에 선 하나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다.

“고분의 벽화는 훼손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학처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곳을 빼고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애뜻한 감상이 끼어들 법도 하지만, 이 책은 담담하게 지난 50년간의 고고학 연구 내용을 전한다. 통구평야의 1만여기 무덤들은 종류대로 적석묘·방단적석묘·방단계적석묘·봉토적석묘·봉토동실묘 등으로 나누어 모았다. 호태왕비의 내용에 대한 중국 학계의 분분한 이견을 소개하기 앞서 《삼국사기》 등의 자료를 동원해 광개토대왕 재위기간의 고구려 역사를 복원한다. 고분의 벽화도 일상생활, 건축, 사신도 등으로 나누어 몇 호 고분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북경 특파원 시절, 기자라는 신분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인용된 자료는 숫자나 페이지수까지 모두 정확합니다.”

책을 쓰는 동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지만 오히려 사명감을 부추겼다. ‘문화유산의 해’인 97년에 출간하게 된 것도 어쩐지 숙명처럼 느껴진다.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잘 모른다. 운동주의 묘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후에 알았다. 뒤늦게 찾은 것들이라 책을 쓰는 동안 감회도 깊었다.

“호태왕비의 정방형 분묘가 햇빛과 달빛, 별빛을 따라 하루종일 비추는 면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사상을 반영한 거죠.”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중국 당국에서는 유적을 보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진실감’을 잃게 될까 염려스럽다. 그 때문에 남한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김삼씨는 올해 안에 북한의 문화유적을 정리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 물론 중국-북한-남한의 미묘한 관계를 잘 살펴야 하지만, 문화유적이라는 인류 공동의 재산을 통해 이념의 갈등은 쉽게 넘어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이현주 기자



살아 있는 활자들의 진실성

《신문읽기의 혁명》 펴낸 손석춘씨

손석춘(37, 한겨레 여론매체부 미디어팀장)기자는 이제 우리 독자들의 신문읽기에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읽고 비판하는 것, 이를 통해 올바른 신문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이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혁명’이다. 그가 최근 펴낸 《신문읽기의 혁명》(개마고원)은 그 지침서다.

신문읽기 혁명의 핵심적인 지침은 ‘편집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는 것’이다. 그는 신문이란 죽은 활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입체로 살아 움직이는 지면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기사의 내용을 고정불변의 객관적 사실인양 무조건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가 그 위치, 그 크기에 그 제목으로 있게 된 속사정을 알게 된다면 신문을 보다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손석춘씨는 한 취재기자의 원고가 취재부장과 편집기자·편집부장·편집국장의 5단계를 거쳐 신문에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을 속속들이 보여주는가 하면 이 과정에 끼어들어 기사의 방향이나 크기, 지면배치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힘’에 대한 분석도 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에는 정권권력이 신문 편집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면 최근의 실세는 ‘자본’이라는 사실. 막강해진 사주의 영향력이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틀지으며 ‘진실’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북한식량원조문제는 대표적인 사례.

대부분의 신문이 ‘식량원조 불가’의 사실을 신고 있던 때에 북한 진출을 염두에 둔 한 재벌그룹의 신문은 ‘식량원조 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여주는 식이다.

“언론문제 해결의 주체는 생산자인 신문사와 생산물인 신문, 소비자인 독자 모두입니다.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고급독자가 많아질 때 우리 신문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80년 언론통폐합 때 비판적 언론들도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언론사에 몸담게 됐다는 손기자는 언론개혁문제에 관심이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기자회견 편집위원을 맡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강연 요청이 오면 마다 않고 간다. 최근에는 여론매체부로 자리를 옮겨 미디어 비평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그는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가 펴낸 《신문편집의 철학》은 전국대학생기자연합회의 필독서가 될 만큼 인기가 높는데, 앞으로 21세기 한국언론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언론정책론》을 출판할 계획이다.

— 박남정 기자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세계관

《나는 역술을 이렇게 본다》 펴낸 오종림씨

복원하면 세상 만사를 헤아리는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 일은 학자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중문학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고, 스물 아홉에 전임강사가 된 수재의 면모와 세상에 달통한 '도인'의 풍모를 동시에 지닌 그가 보는 삶은 이렇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삶의 과정에서 의지가 발동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역술의 유용성은 ‘신비로운 리듬’에서 벗어난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리듬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운명을 살피는 방법으로 독특한 ‘주역예측학’을 세웠다. ‘주역예측학’은 생년일시를 통해 인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나 시주풀이와는 다르다.

역술에 대한 ‘외도’를 중국학 연구의 심화확대로 봐 달라는 오종림씨는 중국 고대 언어학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역술이 역학의 면모를 되찾는데 힘을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3월 교수자리를 미련없이 버렸다. 방송통신대와 수원대에 출강하는 그에게 언제쯤 새 자리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물음에 “때가 되면 되겠지요”하면서 웃었다. — 최성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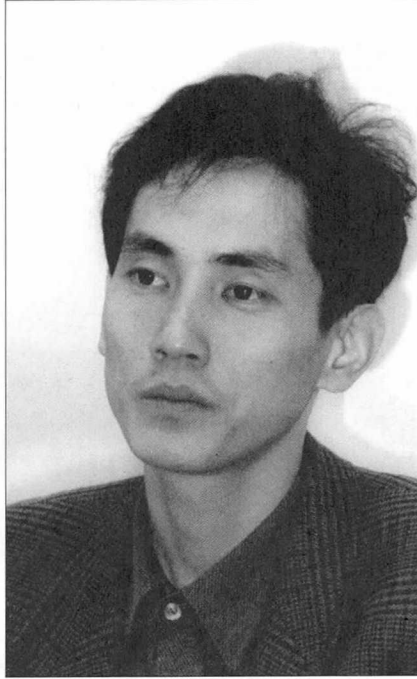


오종림씨(35, 중문학박사)가 《나는 역술을 이렇게 본다》(솔출판사)를 쓴 것은 역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싶어서다. 역술 관련서가 꽤 많이 나와 있지만, 정작 역술에 관해 언급한 책은 드문 탓도 있다. 이 책은 잘 씌어진 역술(학) 개론이다. 2백쪽이 채 안되는 분량이지만, 역술의 분과와 역사부터 역술의 원리, 역술의 텍스트인 《주역》에 대한 고찰을 거쳐 역술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역술을 향한 접근이 철저히 ‘학문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오종림씨가 역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문이 마냥 좋아서 중문학을 공부하게 된 오씨는 틈틈이 《주역》을 읽던 중, 역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사람과 삶을 설명해줄 방편으로 고대 중국인의 세계관이 더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역술 연구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역술 연구에 흠뻑 빠져 박사학위 논문 제출이 늦어질 정도였다.

이 책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한 역술을 7가지로 나눴다. 복점·시초점·점성술·관상술·시주·풍수·잡술 등이 그것. 오씨는 인상비평적인 관상술이나 조상의 음덕 운운하는 못자리 보기 같은 비합리적인 측면은 배제한다. 역술은 아전인수나 건강부회는 끼어들 틈이 없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역술은 상업주의라는 귀신이 들쳐위진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읽어내는 과학이었습니다.”

역술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학문이라고 부연한다. 왜곡된 역술의 내용을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라

《해성 관측 가이드》 펴낸 조상호씨

사람들의 모임이죠.”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과 빛나는 해성을 관측하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쌍안경이 있으면 더욱 좋다. 아마추어 회원 중에는 더 선명한 관측을 위해 장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은 성능좋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이면 충분히 해성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해성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면 그에 걸맞은 카메라 장비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상호씨의 말에 따르면 해성을 보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주위에 불빛이 없는 곳, 높은 산 등지다. 그는 원주에 있는 천문대에 자주 간다. 2주일에 한번쯤 동호인들과 어울려 문명과 떨어진 곳에서 별을 관측한다. 밤을 지새우는 일도 다반사.

“비싼 현대인들은 하루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하늘과 별을 바라보며 산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여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헬리나 헤일-박처럼 발견자의 이름을 따는 해성의 이름에 ‘이 해성’이나 ‘박 해성’처럼 우리 이름이 붙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 마정미 기자

“해성이란 쉽게 말하면 눈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에 있는 오르트 구름의 일부가 깨어지며 떨어져 나온 혜성핵이 태양의 영향으로 태양계 안쪽으로 끌려들어오게 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됩니다. 혜성은 태양 가까이 올수록 핵의 분자와 입자가 증발하여 뒤쪽으로 길게 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천문회 회원 조상호씨(32)는 요즘 별보는 일에 신명이 나 있다. 최근 대혜성 헤일-박 혜성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전성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일식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던 헤일-박 혜성은 3월말~4월 초순경이 되면 가장 밝고 선명하게 보이며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다.

조상호씨는 이에 맞추어 대혜성 헤일-박에 관한 책 《해성관측가이드》(가람기획)를 펴냈다. ‘혜성의 정체’와 ‘헬리혜성에서 박혜성까지’ ‘혜성 관측방법’ ‘혜성 사진촬영’ 등 그동안 써두었던 글과 혜성에 관한 모든 내용을 묶은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월간 《하늘》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며, 국내의 각종 아마추어천문회 단체에서 회원으로 혹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그의 전공은 천문학이나 우주공학이 아니라 기계공학이다.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아마추어 천문회 회원과 천문학자는 서로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는 우주와 천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아마추어 천문회 동호인들은 별보는 것을 즐기는

